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191**  
OCT 08 2021

**발간년월** 2021년 10월 8일(통권 제191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로사툼, 사할린에 친환경 교통 시스템 설치
- 중-러, TSR을 이용하여 화물 수송 활성화
- 러, 온실 가스 줄이는 LNG 추진선박 개발
- 러 상트대-KMI, 북극 연구 협력 MOU
- 로사툼, NSR에 2025년 북극 컨선 투입
- 소브콤플롯, LNG 운반선 정기용선 계약
- 러 FSRU 선박, 처음으로 북극항로 통과

## 주요 통계

- 2021년 8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 주요 동향



# 로사톰, 사할린에 친환경 교통시스템 설치

그림. 2021 사할린 석유 및 가스 포럼 시 협력 양해각서 체결 모습



자료: [https://vestikamaza.ru/posts/kamaz\\_sovmestno\\_s\\_rosatomom\\_i\\_institutami\\_razvitiya\\_dalnego\\_vostoka\\_gotov\\_zanyatsya\\_sozdaniem\\_vodorodnogo\\_proizvodstva\\_i\\_transpo/](https://vestikamaza.ru/posts/kamaz_sovmestno_s_rosatomom_i_institutami_razvitiya_dalnego_vostoka_gotov_zanyatsya_sozdaniem_vodorodnogo_proizvodstva_i_transpo/)

## ■ 로사톰 자회사 및 러시아 4개 국내 기업, 수소기술 협력 양해각서 체결<sup>a)</sup>

- 러시아 국영 원자력 발전기업인 로사톰(Rosatom)의 자회사 ‘Rusatom Overseas’ 주식회사, 카마스(Kamaz)사, 극동북극개발공사(KRDV), 사할린주 개발공사는 사할린의 교통운송부문 수소기술 발전 및 적용에 대한 협력 양해각서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최된 ‘2021 사할린 석유 및 가스 포럼’에서 체결함
- 4개 기업은 수소 파크 조성 프로젝트 공동 참여 및 사할린 주 영토 내 수소연료전지 기반 친환경 교통시스템 조성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임
- 안드레이 메드베데프(Anderi Medvedev) 사할린주 개발공사 대표는, 사할린에서 수출용

친환경 연료 생산이 대규모로 진행될 것이며, 생산된 에너지는 사할린 지역에서도 교통수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 특히, 카마스 사의 경우 지난 9월 6일 자사의 첫 수소연료 전기버스를 모스크바 ‘COMTRANS 2021’ 박람회에서 출품한데 이어 2022년에는 모스크바 시내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있어 이번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사할린 주 정부의 기대가 높음

## ■ 사할린 지역 내 수소 클러스터 개발 예정 등 사할린 주 발전 가능성 커져

- 2021년 4월 23일 러시아극동북극개발부, 사할린 주정부, 로사톰은 3자간 ‘수소 클러스터 조성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의향서에 서명한 바 있음
- 이 의향서는 수소기술개발, 수소연료전지 기반 친환경 운송을 포함한 사할린 주 경제분야로의 수소 기술 적용을 검토하기 위해 서명됨
- 이처럼 사할린 주정부는 현재 수소기술 접목을 통한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중이며, 이와 관련 메드베데프 사할린주 개발공사 대표는 수소파크 조성과 국내 굴지 기업과의 협력 덕분에 사할린 주는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특수성과 역량을 갖게 되는 것은 물론 이는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어 사할린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아울러 현재 사할린 지역 및 인근 지역에는 2개의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고르 노소프(Igor Nosov) 극동북극개발공사 대표는 선도개발구역, 자유항 지역 중 한 곳의 입주 자격을 얻은 투자자의 경우 인프라 지원을 포함한 세제혜택과 행정절차상의 간편화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투자자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함

## ■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북극 항로 평가 및 전망 발표

- 특히 2021 사할린 석유 가스 포럼의 세션6 ‘항만, 조선, 물류’에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종합정책연구본부 이성우 본부장이 북극항로 평가 및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음
- 이 본부장은 북극항로의 상용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북극항로를 통한 아시아향 LNG 수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음. 또한 이성우 본부장은 높은 물류비용이 LNG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지만, 점차 NSR 사용을 늘리고, 항해시간을 늘리면,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단, NSR 상용화에는 혹독한 날씨, 쇄빙선 및 설비 부족, 화물 흐름의 불균형 등 여러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선 기술 개발, 항해 위험의 최소화, 화물 처리 능력, 노동력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이러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4차산업혁명의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음

- NSR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면, 러시아 내륙에 매장되어 있는 자원을 개발하고, 운송하고, 가공하고, 수출하는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성, 효율성, 경제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R과 4차산업기술 협력에는 한러 상호 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

####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12535633>
- b) <https://news.rambler.ru/weapon/47293800-chetyre-kompanii-planiruyut-sovmestno-razvivat-vodorodnyy-transport-na-sahaline/>
- c) <https://realnoevremya.ru/news/224662-kamaz-pokazhet-pervyy-vodorodnyy-elektrobus>  
(2021.10.06.검색)

## 중-러, TSR 이용하여 화물 수송 활성화

### ■ 중국-유럽 구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화물 운송량 급증<sup>a)</sup>

- 중국-유럽 구간의 시베리아횡단철도 화물 운송량 증가는 러시아 철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러시아 정부 추가 세입을 낳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시베리아 지역 운송업체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바이칼-아무르 간선(Baikal-Amur Mainline, BAM) 통과 지역 재건사업이 완료되면 러시아 철도 화물 처리량은 더 증가할 것임

### ■ 크라스노야르스크-중국 구간 정기 컨테이너 철도 노선 도입

- 러시아 철도공사의 자회사인 “RZD Logistics” 노보시비르스크 지사는 가공 목재를 실은 크라스노야르스크-중국 정기 컨테이너 철도 노선을 도입하기 시작함
- 이 서비스에서 62 FEU를 실은 컨테이너 철도가 크라스노야르스크 역에서 출발한 다음 몽골을 경유하여 중국에 도착할 예정이며, 올해 “RZD Logistics”에서 가공목재 화물을 실은 열차를 두 번 운행할 예정임
- 과거에는 62 FEU의 화물을 실은 컨테이너 열차가 크라스노야르스크 지역의 바자이카(Bazaiika) 역에서 출발하여 몽골 경유 후 중국으로 보내졌음
- 다음번 가공목재 화물 컨테이너 열차는 10월에 출발 예정이며, 기존에 컨테이너 열차 한 량을 운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매달 두 량까지 늘린다는 계획임

### ■ 중국-유럽 노선 화물열차 통과 건수 및 운송 TEU 대폭 증가

- 8월 25일 기준으로 중국-유럽 노선의 3,037대의 화물 열차가 중국의 만주-쑤이펄허 국경 검문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 같은 수치는 작년 대비 35.5% 증가한 것인데 열차에 실린 화물은 총 29만 1,186 TEU로 작년보다 44.6% 늘어났음
- 이 수치에는 쑤이펄허시를 통과한 323대(2만 9,176 TEU)의 화물 열차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작년보다 207.6% 증가한 수치임
- 현재 50개 이상의 중국-유럽 철도 노선이 만주와 쑤이펄허를 통과하고 있으며, 광저우, 창사, 이는 톈진 시를 포함한 중국 60개 도시와 10개 이상의 국가와 노선이 연결되어 있음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 참고자료

- a) [http://vch.ru/event/view.html?alias=kitaizy\\_aktivno\\_zagrughayut\\_transsib\\_gruzami](http://vch.ru/event/view.html?alias=kitaizy_aktivno_zagrughayut_transsib_gruzami) (2021.10.01. 검색)



## 러, 온실가스 줄이는 LNG 추진선박 개발

### ■ 기존의 선박 연료를 대체하는 LNG 추진 선박 개발 관심 증대<sup>a)</sup>

- 액화천연가스(LNG)는 깨끗하고 안정적이며, 석유 연료의 대체물이자 저렴하고 발열량이 높은 연료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LNG를 사용하는 선박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 현재 전 세계 LNG 추진선은 117척 이상이고 소형 예인선, 어선, 슈퍼 탱커까지 다양한 종류의 선박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관련 인프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음
- 한국은행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공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 중 LNG 추진선 비중은 60.3%가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글로벌 조선·해운 리서치 회사인 클락슨(Clarksons)과 영국 로이드 선급협회(Lloyd's Register)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다양한 LNG 추진선박이 1,962척 운항할 것이라고 내다 보고 있음
- 이에 러시아 항만에서 국내 이외의 해외 LNG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육상 LNG 병커링 시스템, LNG 병커링 선박이 필요함

### ■ 러, 지난해 12월 혼합연료 사용하는 아프라막스 유조선 개발

- 지난해 12월에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로스네프테플롯(Rosnefteflot)사가 발주한 선박(블라디미르 모노마흐 호) 한 척이 기존의 선박 병커유와 LNG 연료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건조되었음
- 2020년 가을 러시아 노바텍(Novatek)은 북극 LNG-2 프로젝트를 위해 ARC7급 쇄빙 LNG 운반선 15척을 발주하여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에서 러시아 최초로 해당 LNG 운반선 건조에 착수했음
- 이 선박은 북극 기후 조건에서 LNG를 운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추진 엔진장치 용량 45WM, 선박 길이 300m, 선폭 48.8m, 화물탱크 용량은 17만 2600cbm에 달함
- 이와 별도로 러시아 기업 가스프로미네프트(Gazpromneft)는 싱가포르의 케펠(Keppel) 조선소에서 LNG 병커링 선박 드미트리 멘델레예프(Dmitry Mendeleev) 호를 건조함

### ■ 다른 국가들 또한 다양한 LNG 기반 선박을 개발하고 활용중<sup>a)</sup>

- 첫 번째 말린 급(Marlin class) 선박 : 독일 만(MAN)의 가스-디젤 이중연료 엔진인 ME-GI 엔진으로 구동하여 운항시 기존 선박 대비 질소 산화물 98%, 황산화물을 97%, 이산화탄소를 72% 감소시키는 친환경적인 이점이 있음
- LNG 추진 크루즈 선박 : 미국 카니발(Carnival Corporation) 사는 4척의 LNG 추진 크루즈 선박을 발주했는데, 이 선박은 독일 마이어 베르프트(Meyer Werft) 조선소와 이탈리아 핀칸티에리 (Fincantieri S.p.A) 조선소에서 건조될 예정이며, 그중 2척은 독일 아이다(AIDA)사에 용선할 예정임
- LNG 로로선(Ro-Ro) : 세계 최대 LNG 로로선 시로드 머지2(Searoad Mersey 2(IMO: 9745794))는 호주 시로드(SeaRoad) 사에 의해 발주되어 2016년 독일 Flensburger Schiffbau Gesellschaft(FSG)에서 건조하였음. 이 선박은 냉장 제품, 트레일러, 자동차, 위험물, 축산물 등의 컨테이너 운반이 가능함
- LNG 시멘트 수송선 : 그린란드(Greenland(IMO: 9734264))는 2015년 독일 페루스 스밋(Ferus Smit) 조선소에서 건조되어 제이티 시멘트(JT Cement)에 인도되었으며, 적재 및 하역은 최대 500m³까지 가능하며, 선박 길이 109.65m, 선평 14.99m로 화물 용량은 약 7,200t임
- LNG 추진 시추선 : 세계 최초 LNG 시추선이 미국 ABS와 공동개발사업으로 한국 대우조선해양(DSME)에서 건조 예정이며, 대우조선해양은 선체 개념에 대한 기본 설계 연구와 검증을 맡고 ABS는 설계 적합성과 위험성 검토를 책임짐
- LNG 동력 예인선b) : 보르괴이(Borgøy(IMO: 9662112)) 및 보크(Bokn(IMO: 9662124)) 선박은 노르웨이 Buksér og Berging사가 설계했으며, 2015년 터키 조선소 사마르(Sanmar)에서 건조되었고, 2개의 린번 엔진(Lean Burn Engine)c)으로 구동되며 2020년 2월 28일, LNG 예인선 병커링(연료 보급) 작업이 중국 항구인 Ningbo-Zhoushan에서 진행됨
- 배터리 및 LNG로 움직이는 어선 : 터키에서 2019년 건조된 어선 리바스(Libas(IMO : 9,850,989))호는 선박 길이 86m, 선평 17.80m이며, 내장 배터리와 LNG 탱크 용량 350m³임
- LNG 병커링선 : 싱가포르 조선사 케펠 오프쇼어 앤 마린(Keppel Offshore & Marine)과 일본 미쓰이 물산(Mitsui & Co(Asia Pacific))이 싱가포르 정부의 일부 자금 지원을 받아 이중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병커링 탱커(Dual-fuel bunker tanker) 건조 계약 체결함
- 일본 마루베니(Marubeni)사는 태국의 국영 정유사인 PTT와 함께 램차방 항(Laem Chabang



Port)에 LNG 벙커링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발표했으며, 태국 EEC 경제 구역 맵타풋(Map Ta Phut) 내에 PTT사가 관리하는 LNG선 터미널에서 활용할 연료공급 선박 연구와 해당 지역 인프라 개발한다는 방침임

강하람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wish125@hufs.ac.kr)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

####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analitika/1689/90019/> (2021.10.3. 검색)
- b) 예인선의 길이 35m, 폭 15m, 깊이 5.5m
- c) 1,000rpm에 총 출력이 3,410kW인 롤스로이스 베르겐(Rolls-Royce Bergen) 사

## 러 상트대-KMI, 북극 연구 협력 MOU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와 MOU를 체결했음<sup>a)</sup>

- 협약의 주요 내용은 ▲에너지 경제, 기술, 정책 및 산업 분야 연구 발전에 기여, ▲공동연구 및 워크숍 등을 통한 연구교류 활성화, ▲장기적 협력관계 및 상호이해를 위한 환경 조성 등임
- 이번 협약은 ▲러시아 및 북극 관련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 접근성 제고, ▲연구인력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 신북방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 한러 협력방안 모색 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 러시아 거점별 연구 협력기관과 MOU를 체결하고 공동연구 등 다각적 협력

- KMI는 2020년에 블라디보스톡에 ‘러시아연구센터’를 개소해 양국 간 해양·수산분야 연구 협력과 러시아 물류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블라디보스톡에서 ‘한러공동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음
- 또한 러시아 네벨스코이 해양대학교(‘18), 러시아 북동연방대학교(‘19), 스콜코보 모스크바 경영대학원(‘20)과 MOU를 체결하여 매년 국제공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는 1724년 설립된 러시아 최고 고등교육기관

- 이 대학교는 자연·인문·예술·공학·사회과학 대학이 포함된 종합대학으로 공공기관(가스프롬, 러시아 우체국 등) 및 주요 대기업(루코일, 안텍스, 북서해운사 등) 등 다양한 네트워킹이 구축되어 있음
- 특히 푸틴 대통령, 메드베데프 전 총리, 블라디미르 레닌 등 전·현직 대통령, 장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명문대학교로 러시아 정치 엘리트의 산실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 로사툼, NSR에 2025년 북극 컨선 투입

그림. 러시아 철도 및 컨테이너 운송로



자료: Malte Humpert, Arctic Today, OnTheWorldMap

## ■ 로사툼, 2025년부터 북극 컨테이너선 NSR 운항 개시<sup>9)</sup>

- 지난 9월 29일 개최된 ‘사할린 석유 및 가스 컨퍼런스’에서 알렉산더 브린체브(Alexander Bryntsev) 로사툼 카고의 조선·환적인프라 부장은 로사툼은 시범적으로 컨테이너 6,000TEU를 적재할 수 있는 빙해등급 컨테이너선을 건조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처음 인도되는 컨테이너선을 2025년에 북극항로에 투입하여 운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새로운 북극 운항 컨테이너 선박 설계 사업 입찰은 2021년 말에 발표될 예정임
- 지난 7월 로사툼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항만운영사인 DP World는 북방해상교통로(SMTC) 사업의 하나로 시범 컨테이너선을 공동으로 개발 및 설계하기로 하는 협력협정을 맺은 바 있음
- SMTC 사업은 NSR를 따라 화물 환적을 위한 허브항만과 컨테이너선 운항루트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또한 DP World는 지난달 러시아 최대 복합운송회사인 FESCO와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새로운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경제적 여건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음

- 이와 함께 로사톰의 자회사인 Atomenergoprom JSC와 FESCO는 블라디보스톡 항만에 교통 및 물류 허브를 구축한다는 방침임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

#### 참고자료

- a) <https://www.offshore-energy.biz/rosatom-to-deploy-1st-arctic-boxship-on-northern-sea-route-in-2025/>(2021.10.7. 검색)

# 소브콤플롯, LNG운반선 정기용선 계약

## ■ 소브콤플롯, 신규 LNG 운반선박 4척에 대한 정기용선 계약 체결

- 소브콤플롯이 합작투자사인 니폰유센(NYK)을 통해 노바텍의 자회사인 NOVATEK Gas and Power Asia社와 17만 4,000m³ LNG선 신규 4척에 대한 정기용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 9월 30일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 계약 체결식에는 러시아 소브콤플롯, 노바텍, 일본 니폰유센 등의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음
- 신규 LNG선은 노바텍의 북극권 지역 사업에서 생산되는 화물을 캄차카와 무르만스크에 위치한 액화천연가스 저장 및 환적설비(FSU)에서 적재하여 유럽과 아시아의 LNG 시장으로 운송하는데 활용될 계획임
- 신규 선박은 최신 환경 요건을 충족하는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설계될 예정임
- 소브콤플롯 대표는 이날 체결식에서 “새로 건조되는 LNG선은 최신 환경 요건을 충족하고, 가장 엄격한 국제해사기구(IMO) 규칙에 부합하고, 세계 시장으로 러시아산 LNG를 수출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또한 이번 계약에 대해 장기 협력파트너인 NYK와의 협력관계에서 중요한 발전이라고 평가했으며, 사할린-II와 인도네시아 Tangguh 사업을 통해서도 두 회사는 LNG 운송 사업에서 이미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음
- 2006년부터 LNG선을 운항하고 있는 소브콤플롯은 현재 모두 16척의 LNG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용선 계약이 체결된 4척까지 포함하면 현재 건조 중인 선박은 총 25척임

김지혜 전문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hkim85@kmi.re.kr/051-797-4767)

# 러시아 FSRU선, 처음으로 북극항로 통과

그림. '마샬 바실레프스키'호의 측면 사진



자료: <https://www.tradewindsnews.com/gas/gazpromflot-s-first-fsru-delivers/2-1-470683>

## ■ 러시아 FSRU선, LNG 화물을 실어 사베타항에서 출항하여 북극항로 운항<sup>a)</sup>

- 러시아 소브콤플롯(Sovcomflot) 그룹의 기술 관리를 받고 있는 가스운반선 '마샬 바실레프스키(Marshal Vasilevsky)'호가 9월 15일 야말 LNG 플랜트에서 생산된 LNG 화물을 싣기 위해 사베타 항에서 출항하여 선적을 마친 뒤, 9월 23일 북극항로를 따라 항해를 시작함
- LNG 화물 선적에는 13시간 40분이 소요되었으며, 총 16만 2,505 입방미터의 LNG가 선적되었고, 선적 작업이 끝난 후 선박은 인도 다볼(Dabhol) 항으로 운항하고 있음
- '마샬 바실레프스키' 선박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평균 10노트 속도를 유지하며 북극항로 수역을 항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북극항로 항해는 LNG 운반선박을 운항한 경험이 있는 세르게이 라르첸코(Sergei Larchenko) 선장이 이끌고 있음
- '마샬 바실레프스키' 선박은 러시아 유일의 부유식 LNG 저장 및 재기화 설비(FSRU)선박<sup>a)</sup>으로 러시아 선급협회(Russian Maritime Register of Shipping) 및 로이드 선급(Lloyd's Register)의 선급 검사를 받은 쇠빙등급 Arc4급으로 건조되었고, 액화가스 운송 선박 건조 및 설비 장치에 대한 국제 규정에 따라 정의된 2G형선으로 제작된 것이 특징임
- 선체는 길이 294.7m, 폭 46.4m, 화물 적재량 17만 4,000 입방미터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주요 통계



표. 2021년 8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1.78 (+4.1%)	5.9 (-4.0%)	17.68	+1.3%
북극해	3.03 (+1.1%)	4.72(-3.2%)	7.75	-1.9%
발트해	10.1 (+7.2%)	11.09 (-2.9%)	21.19	+1.6%
아조프-흑해	11.35 (+9.5%)	11.36(-0.3%)	22.71	+3.8%
카스피해	0.18 (-31.9%)	0.41 (-0.3%)	0.59	-13.7%
합계	36.44(+5.8%)	33.48(-2.2%)	69.92	+1.6%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카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16908/>(2021.9.15.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18498/>(2021.9.15. 검색)

표. 2021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318,482.8	47,484.0	1,007.7	1,164.3	319,490.5	48,648.4
25-27	광물 제품	1,988,305.9	47,832.0	38,259.6	23,011.8	2,026,565.4	70,843.8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1,673,666.6	42,387.7	306.8	2	1,673,973.3	42,389.7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5,513.3	66,717.2	1,217.1	590.7	6,730.3	67,307.9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23.6	1,857.4	12.2	21.5	35.8	1,878.9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104,588.4	9,265.3	173.6	1.6	104,762.1	9,266.9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199.9	51,395.5	65.7	510.4	265.6	51,905.9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162,923.1	99,501.7	770.6	2,421.2	163,693.7	101,922.9
84-90	기계류	102,450.1	620,022.0	1,375.4	3,712.9	103,825.5	623,735.0
68-71, 91-97	기타	368,559.2	40,331.8	49,683.9	291.6	418,243.1	40,623.4
	합계	3,051,046.2	984,406.9	92,565.7	31,726.0	3,143,612	1,016,133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9.15.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9.15. 검색))

표. 2021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419	523.9	-	-	-	-	-	-	419.1	523.9	-	-
0303	냉동수산물	76,198	111,405	170	746.6	20	21.3	-	-	76,218.1	111,426.3	170	746.6
03031	연어	2,702	19,813.4	-	-	0	0.0	-	-	2,701.6	19,813.4	-	-
030331	광어	233	1,421.3	-	-	-	-	-	-	232.7	1,421.3	-	-
030332	가자미	1,565	1,436.8	-	-	-	-	-	-	1,564.8	1,436.8	-	-
030339	기타 넙치류	1,970	1,584.9	-	-	-	-	-	-	1,969.8	1,584.9	-	-
030351	청어	13,555	8,475.6	-	-	0	0.0	-	-	13,554.5	8,475.6	-	-
030363	대구	8,246	21,578.1	-	-	-	-	-	-	8,245.8	21,578.1	-	-
03036 70000	명태	26,989	25,743.7	-	-	20	21.3	-	-	27,009.2	25,765.0	-	-
03038 93	농어	12	42.2	-	-	-	-	-	-	12.3	42.2	-	-
030391	알류	3,347	20,954.8	-	-	-	-	-	-	3,346.6	20,954.9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798	1,007.0	-	-	-	-	-	-	797.9	1,007.0	-	-
0304	생선 필레	11,120	33,774.7	122	471.0	18	44.5	-	-	11,138.1	33,819.2	122	471.0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21	30.9	79	516.3	0	0.0	-	-	20.6	30.9	79	516.3
0306	갑각류	5,731	139,181.9	103	749.5	-	0.0	-	-	5,731.0	139,181.9	103	749.5
030614, 030633, 030693	게	5,156	132,107.2	-	-	-	0.0	-	-	5,155.9	132,107.2	-	-
0307	조개류	3,605	9,752.2	-	-	0	0.0	-	-	3,605.2	9,752.2	-	-
03072	가리비	234	437.4	-	-	-	-	-	-	234.2	437.4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3,027	6,857.6	177	557.4	0	0.0	-	-	3,026.6	6,857.6	177	557.4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809	3,489.8	-	-	0	0.0	-	-	809.0	3,489.8	-	-
03081	해삼	280	662.2	-	-	0	0.0	-	-	280.2	662.2	-	-
03082	성게	529	2,827.6	-	-	-	-	-	-	528.8	2,827.6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종합정책연구본부 북방·극지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소피아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1.9.15. 검색)